

## ◇류마티스성과 퇴행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에서 판막성형술의 조기성적 비교

송태승, 이재원, 송명근, 송현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배경 및 목적** : 승모판 폐쇄부전증에서 판막성형술을 시행하였을 때, 단기 성적에서는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이 퇴행성 판막질환보다 비교적 좋으나 장기 성적에서는 퇴행성 판막질환에 비하여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에서는 판막성형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교실에서 시행한 승모판성형술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류마티스성 승모판 폐쇄부전에서 판막성형술의 효과를 검증하려 하였다.

**방법** : 본 교실에서는 94년 1월부터 98년 7월까지 159례의 승모판막 성형술이 시행되어졌고, 이중 의무기록상 류마티스성 판막질환과 퇴행성 판막질환으로 분류 가능한 105례에서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을 I군[ n=52 ], 퇴행성 판막질환을 II군[ n=53 ]으로 분류하였다. 두 군간에 연령과 성비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반 질환은 I군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중 심폐 우회시간과 심폐기 재가동율을 비교하여 수술의 난이도를 분석하였고, 주기적인 추적관찰과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두 군에서 승모판막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 수술사망율은 없었으며, 평균  $15.5 \pm 13.0$ 개월의 추적관찰에서 두 군 모두 수술전에 비해 수술후 심초음파에서 혈액학적 향상을 보였고, 두 군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승모판면적의 변화에서는 수술직후와 3개월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6개월과 12개월에서는 I군과 II군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나, 18개월 이상 추적 관찰결과 I군은, II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우회시간이 I군과 II군에서 차이[p=0.037]를 보였고, 심폐기 이탈후에 심폐기 재가동을 시행한 경우도 I군이 18.9%, II군이 5.7%로 차이[p<0.001]를 보였다. 최종 추적 심초음파에서 승모판막의 폐쇄부전[I/IV도]정도도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 추적관찰까지 재수술 받은 경우는 I군에서 1례, II군에서 2례였다.

**결론** : 단기 추적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두 군간에 수술 난이도 면에서는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술후 성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모판막 면적의 추적 변화는 18개월 이상 추적관찰 대상이 적어 아직까지는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류마티스성 승모판막질환에서도 판막성형술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